**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― 감추어지신 하나님**

**6/19 월**

**사 45:15**  
**15** 오,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, 정녕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.

**요 1:18**  
**18** 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,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.

**욥 23:3**  
**3** 오, 어디서 그분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았더라면 그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더라면!

**시 17:6-8**  
**6** 오, 하나님! 주님께서 제게 응답하시겠기에 제가 주님을 부릅니다. 제게 귀를 기울이시어 저의 말을 들어 주십시오.  
**7** 주님의 놀라운 자애를 나타내 주십시오.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을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!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.  
**8** 저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며 저를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겨 주시어

**히 1:1-3**  
**1** 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신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,  
**2** 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물을 상속받으실 분으로 세우셨습니다. 또한 이 아들을 통하여 우주를 만드셨습니다.  
**3** 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,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십니다.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,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.

**6/20 화**

**마 6:1-6, 16-18**  
**1** 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. 그러지 않으면,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.  
**2** 그러므로 구제할 때,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, 그대의 앞을 향하여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.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.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.  
**3** 그러나 그대는 구제할 때,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,  
**4** 그대의 구제를 은밀한 가운데 하십시오.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.  
**5** 또 여러분은 기도할 때,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.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.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.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.  
**6** 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,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,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.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.  
**16** 또한 여러분은 금식할 때, 침울한 얼굴을 한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. 그들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.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,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.  
**17** 그러나 그대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,  
**18** 그대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,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십시오.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.

**6/21 수**

**에 4:14, 16**  
**14** 이번에 왕후께서 침묵하시면, 유대인은 다른 어떤 데서 해방과 구출을 받겠지만 왕후와 왕후의 아버지 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. 왕후께서 바로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신 것이 아닌지 누가 압니까?”  
**16** “가셔서, 수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모아 저를 위해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. 삼 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. 저도 제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. 그러고 나서 법대로 하지 않고 왕께 나아가겠습니다.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.”

**슥 1:8-13, 16-17**  
**8** 내가 밤에 보니, 보아라, 한 사람이 붉은색 말을 타고 골짜기 바닥 화석류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데, 그분 뒤에는 붉은색 말과 적갈색 말과 흰색 말이 있었다.  
**9** 그래서 내가 물었다. “어르신,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?” 나와 말하던 천사가 대답하였다. “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 주겠습니다.”  
**10** 그때 화석류나무들 사이에 선 그 사람이 말하였다. “이 말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라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들이다.”  
**11** 그들이 화석류나무들 사이에 서신 여호와의 천사께 말하였다. “저희가 땅을 두루 돌아다녀 보니, 참으로 온 땅이 고요하고 평온하였습니다.”  
**12** 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께서 말씀하셨다. “오, 만군의 여호와님,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? 주님께서 진노하신 지 칠십 년이 되었습니다.”  
**13** 여호와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.  
**16** 그러기에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. 내가 불쌍히 여겨 예루살렘에 돌아왔다. 그곳에 내 집이 건축되리니, 측량줄이 예루살렘 위에 쳐질 것이다.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.  
**17** 거듭 외쳐 말하여라.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. 내 성들은 다시 좋은 것으로 넘쳐흐를 것이다. 여호와가 시온을 다시 위로하며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겠다.’ ”

**6/22 목**

**눅 18:1-6**  
**1** 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.  
**2** “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.  
**3** 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늘 그에게 가서, ‘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.’라고 하니,  
**4** 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다가, 나중에는 속으로 ‘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지만,  
**5** 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,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어야겠다. 그러지 않으면, 이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못살게 굴겠구나.’라고 하였습니다.”  
**6** 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. “여러분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으십시오.

**롬 12:12**  
**12** 소망 가운데 기뻐하고, 환난 가운데 견디며, 기도에 꾸준히 힘쓰십시오.

**엡 6:18**  
**18** 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.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,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.

**골 4:2**  
**2** 기도에 꾸준히 힘쓰고,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.

**살전 5:17**  
**17** 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.

**6/23 금**

**눅 18:7-8**  
**7** 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자기에게 부르짖는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만 계시겠습니까?  
**8** 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.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 주실 것입니다.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보겠습니까?”

**계 2:8-11**  
**8** 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. ‘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한다.  
**9** 내가 너의 환난과 가난을 안다. 그러나 사실 너는 풍족하다.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의 비방도 나는 안다.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다.  
**10** 너는 장차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. 보아라,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 시험할 것이다. 그래서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. 죽기까지 신실하여라.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.  
**11** 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. 이기는 이는 결코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.’

**엡 3:16-17**  
**16** 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,  
**17** 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,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

**6/24 토**

1. **눅 18:8**  
   **8** 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.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 주실 것입니다.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보겠습니까?”
2. **계 6:9-11**  
   **9** 어린양께서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,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지닌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 
   **10** 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“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재자시여,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언제쯤 심판하시어 우리 피의 원한을 갚아 주시겠습니까?”라고 하니,  
   **11** 그들 각 사람에게 흰 겉옷을 주시면서, 그들의 동료 노예들과 형제들 중 그들처럼 죽음을 당할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아직 잠시 더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
3. **계 8:1-6**  
   **1** 어린양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셨을 때,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습니다.  
   **2** 내가 보니,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고, 일곱 나팔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.  
   **3** 다른 천사께서 오셔서, 금향로를 가지시고 제단 곁에 서셨습니다. 그분은 많은 향을 받으셨는데,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 있는 금향단에 드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  
   **4** 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,  
   **5** 그 천사께서 향로를 가져오시어 제단의 불을 가득히 채우셔서 땅에 던지시니,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.  
   **6** 그때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.
4. **6/25 주일**
5. **에 9:15-19, 21-22, 27-32**  
   **15** 수사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달월 열나흗날에도 함께 모여 수사에서 삼백 명을 죽였으나,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.  
   **16** 왕이 다스리는 지방들에 있는 나머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모였고,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하였다.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이들 칠만 오천 명을 죽였으나,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.  
   **17** 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열사흗날이었다. 그들은 같은 달 열나흗날에는 안식하면서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.  
   **18** 그러나 수사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달 열사흗날과 열나흗날에 모였고, 같은 달 열닷샛날에 안식하면서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.  
   **19** 그러므로 마을에 사는 유대인들 곧 성벽 없는 촌락에 사는 이들은 아달월 열나흗날을 기뻐하며 잔치하는 날, 좋은 날, 서로에게 몫을 보내는 날로 삼았다.  
   **21** 해마다 아달월 열나흗날과 같은 달 열닷샛날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였다.  
   **22** 그날들에 유대인들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하였고, 그달에 유대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애도의 날이 좋은 날로 바뀌었기 때문이다. 그들은 그날들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, 서로에게 몫을 보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날로 삼도록 한 것이다.  
   **27** 유대인들은 이 두 날을 그들 자신과 그들의 씨 그리고 그들에게 합류하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할 관습으로 확립하여, 이날들에 관해 기록된 대로 정해진 때에 해마다 차질 없이 지키며  
   **28** 모든 세대와 모든 가문과 모든 지방과 모든 성에서 이날들을 기억하고 지켜,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부림절을 거르거나 그들의 씨에게서 이날들을 기념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게 하였다.  
   **29** 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는 유대인 모르드개와 함께 전권을 가지고 기록하여 부림절에 관한 이 두 번째 편지를 확정하였다.  
   **30** 모르드개는 아하수에로왕이 다스리는 백스물일곱 지방의 모든 유대인에게 편지 곧 화평과 진실의 말을 전해,  
   **31** 이 부림절을 정해진 때에 지키도록 확립해 놓았는데, 이것은 유대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가 확립해 놓은 대로였고, 자신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일에 관하여 자신들과 자신들의 씨에게 확립해 놓은 대로였다.  
   **32** 에스더의 명령은 부림절에 관한 이 일들을 확증하였고, 그것은 책에 기록되었다.
6. **찬송: 501  영광스런 사랑의 주  (中:382)**
7. **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**
8. **1단계-순차적 연구**로마서 11:1-36; *로마서 라이프 스타디*, 24장
9. **2단계-주제별 연구  
   Knowing, Reckoning, and Presenting unto SanctificationScripture**: 로마서 6-7  
   **churchinnyc.org/bible-study**